**무상감자**

대부분의 기업이 공지하는 무상감자 사유는, ‘재무구조 개선’과 ‘자본금규모 적정화’

가장 최근의 무상감자 관련 사례는 오리엔트바이오임.(보통주100주 -> 44.54주로 무상 감자)

무상감자를 결정하게 되면 기준일 전날부터 한달 후 까지 매매거래가 중단됨

이후 감자를 반영하여 다시 가격을 책정하게 됨.

보통 다시 책정할 때 감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증거이므로 악재로 작용하여 폭락!

**코데즈 컴바인 사태 2015**

: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상장폐지 직전까지 간 코데즈컴바인이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름 how? 감자와 재상장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부풀려졌고 FTSE(파이낸셜타임스스톡인스체인지) 지수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급등. (200:1, 7:1의 무상감자 시행)

발단: 코데즈컴바인은 4년 연속 적자와 자본잠식률이 50%를 넘어서면서 관리종목에 편입(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)

->기업 회생 절차(법정관리)에 들어가면서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상폐 직전까지 감    
   
->코튼클럽이 코데즈컴바인을 인수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고, 회생절차 종결 이후 10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   
   
->거래 재개 된 후 코데즈컴바인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였음(감자 200대1).

->감자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유통주식수 총 상장주식의 0.6%인 25만주로 줄임. 동시에 주가는 500원에서 4만원으로 오름. 시가총액도 258억원(시총 906위)에서 1조원대로(시총 17위)으로 뛰어오름

-> 시가총액을 편입 기준으로 하는 FTSE 지수에 편입. 편입 버프(편입 된 후 펀드 자금이 왕창 유입되며 폭등)로 원래 23200원 인 주가가 이후 9거래일간 212.27% 급등해 15만원을 돌파. (시가총액이 6조원을 넘어서 카카오를 제치고 시총 2위에 등극)

-> 이때의 현상을 품절주 급등 현상이라고 함. 코스닥 시장에서 유통주식수가 적은 품절주가 쭉 급등하는 것  
->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가 현저히 적은 주식은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품절주 대책 세움. FTSE 등 지수기관 등과 편입 종목 기준을 변경으로 사태 일단락!

**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?**

=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

자본 총계가 자본금 보다 적은 자본잠식의 상태 가정

->기업이 무상감자 결정하면 자본금이 줄고, 자본잉여금과 줄어든 자본금이 합쳐져서 자본잠식 탈피

->유상증자 시행하면 자본 총계 증가, 자본 총계와 자본금의 차이가 더 커져 재무구조 개선

**보호 예수**

= 기업이 신주 발행 시 일정기간 동안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. 개미보호

보호 예수 기간 해제 시 유통주식수의 급증으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악재로 작용

사례: 동양네트웍스 주가 폭락

보호예수기간의 만료로 단기적으로 유통주식수가 15% 가량 증가하며 주가가 하락하였음.(그러나 기업의 순 가치 감소로 인한 주가 하락이 아니니 매수 타이밍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!)







